

문 의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초재료화학심사과	과 장 손창호 042-481-5407 사무관 박함용 042-481-840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0년 1월 29일(수)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국가 탄소소재 IP 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포럼' 개최

- 지자체 · 전문연구 함께 탄소소재 기술 자립화 지원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전라북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함께 국가 탄소소재 IP 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포럼을 1월 29일(수) 전북 전주에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가 탄소소재 IP 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1.29(수) 15:00~17:00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전북 전주 소재)
- 참석자 : 특허청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및 탄소소재 산학연 관계자 등(약 50여명)
- 내용 : ① 탄소소재 산업·특허 동향조사 사업 결과, 국가 R&D 정책 등 발표
② 탄소소재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 관계자 의견 수렴 등

- 국가 탄소소재 IP 협의체는 지난 해 12월 열린 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된, 탄소소재 등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확보 방안 및 관련 기업들의 지재권 애로·건의 사항 등을 바탕으로, 산·학·연·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 ‘탄소섬유’는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산업인 수소·전기차, 우주·항공,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첨단 소재로 최근들어 그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탄소섬유’ 관련 국내·외 특허 출원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정도로 나타났다.

* 주요국(한·미·일·EU·중) top 10 출원인을 기준으로 탄소섬유 관련 기술분야 출원 점유율 약3% (‘19.10월 기준)

- 이에 특허청은 지난 해 10월부터 탄소소재 등 주요 소재·부품·장비 기술분야에 대한 ‘산업·특허 동향조사 사업’을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산업에 뿌리가 되는 품목에 대한 지재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이날 특허청은 ‘탄소소재 분야 산업·특허 동향조사 사업 결과’, ‘수소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탄소섬유복합체’를, 한국화학연구원은 ‘탄소소재 분야 국가 R&D과제 진행 현황’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수소운송용 대용량 압력용기 개발’ 등 기업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 또한, 이번에 출범하는 국가 탄소소재 IP협의체를 통해 특허청은 관련 특허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업계에 공유하고, 정부, 지자체, 대·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탄소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특허청 류동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탄소소재는 미래 제조업의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이나,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특허망 구축은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지재권 등에 대한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산업·특허 동향조사 사업, 연구기관·정부·지자체간 협력 등을 통해 탄소소재 기술 자립화 및 강한 특허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